

보 도 자 료



- ◆ 2023. 6. 7. (수) 배포
- ◆ 총 4쪽 (본문 2쪽, 첨부 2쪽)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문화홍보실장 ☎ 032-770-8631
김기태 문화홍보실 행정원 ☎ 032-770-8632

극지, 예술을 만나다

예술가 창작지원 사업 13주년 기념 <0.1cm : 극지로 떠난 예술가들> 전시 개최

- 극지연구소 (소장 강성호)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하 예술위, 위원장 정병국)는 오는 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삼청동 공근혜 갤러리에서 극지 레지던스 성과보고전 <0.1cm: 극지로 떠난 예술가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양 기관은 국내 문화·예술계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예술가들을 남극과 북극에 파견하는 '극지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13년간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15명 (팀)의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 0.1cm는 극지의 변화와 예측을 상징하는 수치이다. 과거 수십 년간의 기록이 담긴 빙하의 두께이면서, 수천 억 톤의 빙하가 녹아서 바다에 유입됐을 때 상승하는 해수면의 높이이다. 예술가들도 극지현장에서 0.1cm의 작지만 큰 변화를 목격하고 작품에 담아냈으며, 이런 의도는 전시 명에도 반영됐다.
- 웹툰 '미생'의 윤태호 작가 (2013, 2019-2020, 남극), 2022년 김종영 미술상을 수상한 김승영 작가 (2011, 남극) 등은 극지 과학자들의 '일터'인 극지에서 환경, 권력, 국가라는 거대한 이슈 앞에 놓인 개인의 일상과 감정 등을 예술가의 시선으로 해석했다.

- 이밖에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한 인간의 현실, 극지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 같은 폭넓은 주제들을 아동문학, 소설, 웹툰, 설치예술, 사진과 영상 등 다양한 예술적 기법으로 풀어내 보여준다.
- 이번 전시는 화~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다음달 1일 (토) 오후 1시에는 전시 연계 프로그램 <예술가와 과학자>를 진행한다. 남극 내륙 탐사를 주제로 이종의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과 윤태호 작가가, 북극탐사를 주제로 홍종국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과 홍기원 작가가 만나서 대담 형식으로 각 분야의 시각을 교환한다.
- 전시에 참여한 시각예술분야 작가 7명의 작품은 7월 26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 극지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매년 공모로 예술가를 선발하며, 해당 예술가는 남극 세종과학기지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에서 약 30일간 과학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창작활동을 진행한다. 올해는 시각예술 분야 유비호 작가가 오는 8월 아라온호의 북극항해에 동행할 예정이다.
- 강성호 극지연구소 소장은 “하얀색과 파란색뿐인 극지에서 예술가들은 과학자들이 보지 못했던 부분에 주목,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는 놀라운 마법을 보여줬다. 이번 전시회가 극지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하는 자리이자, 과학계와 예술계의 모범적인 만남 사례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붙임1. 전시 포스터


붙임2. 작품 소개



2023.6.7. - 7.7.
공근해갤러리

0.1cm
0.1cm
0.1cm
0.1cm
0.1cm
0.1cm
0.1cm
0.1cm

국지로
떠난
예술가들

김승영
김주연
박홍순
조광희
한정기
한창훈
천운영
정지우
윤태호
김남중
오주영
김세진
염지혜
손광주
이정화
홍기원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KOPRI 극지연구소

후원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 김효정

관람가능시간 및 휴관일
화 - 토, 10:30 - 17:30

공근해갤러리
서울 종로구 삼청로7길 38
공근해갤러리빌딩
02-738-7776
konggallery.com

- 극지에서의 경험을 통해 작가는 거대한 자연에 대한 숭고함을 전하거나 (김승영)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기체적 풍경과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를 조명하고(김주연), 비현실적인 풍경에서 지내는 나날을 사진으로 기록하며(박홍순) 극지로 떠난 젊은 음악인의 심리를 웹툰을 통해 세밀하게 묘사한다(윤태호).
- 외부와 동떨어진 고립된 남극 세종기지에서 가족에게 쓴 편지(한정기)와 북극을 탐험하는 아라온호에서 생활하며 집필한 항해기(한창훈), 세종기지 월동대원들의 연구 활동을 묘사한 다큐멘터리(천운영, 정지우)와 극지 환경을 마주한 탐사대원과 그들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작업(홍기원)은 간의 손이 거의 닿지 않은 자연환경과 그 곳을 무대로 활동하는 과학자들의 치열한 삶을 보여준다.
- 한편, 영상에 담긴 서서히 녹는 남극의 얼음과 얼음 속 기포가 터지는 미세한 소리(조광희), 녹아 사라지는 북극에서 남극으로 북극곰을 이주시키는 이야기(김남중), 아라온호를 오마주한 고드름호에 숨어들어 바캉스를 떠난 빨간 여우의 모험(오주영)은 기후변화에 직면한 인간의 위기를 되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 작가들은 남극과 북극에서 지내며 수집한 영상을 활용하여 남극이 가진 허구성과 실재성의 간극을 묘사하고(김세진), 남극에 얽혀있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드러내며(염지혜), 사라짐의 위기에 처한 북극해의 현재를 가시화하거나(손광주), 태초의 자연이 간직한 신화적 공간과 이를 갈망하는 국가들의 열망으로 형상화하는(이정화) 상상력을 보여준다.